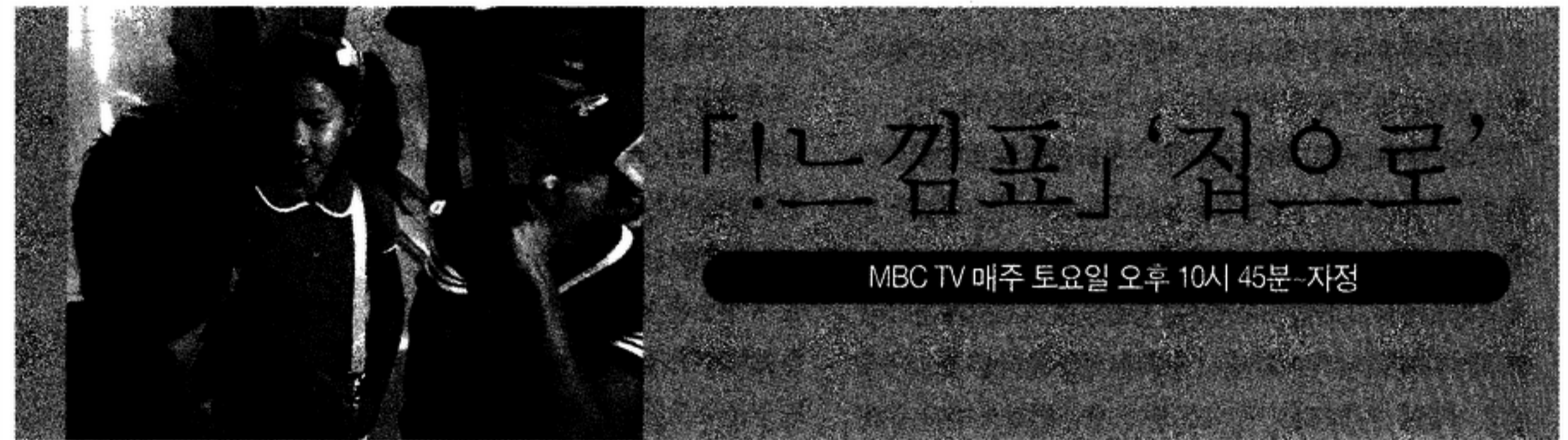


설 동 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MBC** TV가 2005년 8월 20일부터 「!느낌표」에서 '아시아! 아시아! 제3탄-집으로'를 방송하고 있다. 제1탄(2002년)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향 방문을 주선하거나 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상봉의 기회를 주었고, 제2탄(2003년)이 20세기 굴절된 한민족의 역사적 산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고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발전된 한국 사회를 보여주었다면, 제3탄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자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04년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 건수는 35,447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1.4%에 달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그 반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 결과 한국 사회 곳곳에서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 출신



여성을 만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었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면 자연스레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단일민족의 신화로 대표되는 순혈주의(純血主義)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 아동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

MBC의 공익 오락 프로그램 「!느낌표」는 혼혈아동이 겪는 또래집단의 따돌림과 놀림을 정면에서 다루면서, 그 아이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들이 어머니의 나라 이름을 부르며 놀려대는 데도 어디에 화를 낼지조차 몰랐던 아이는 자신의 외가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중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앞으로 겪게 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의 원천을 그를 사랑해주는 가족에서 찾는다. 아이는 어머니의 나라는 비록 한국보다 가난하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TV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그렇지만 아동이 어머니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긍지를 보여주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 나라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매우 훌륭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TV 방송이 이러한 점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외가 나라에 대한 긍지를 배양할 것이고, 시청자들은 그 나라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중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들이 우리 이웃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재미를 곁들여 계몽시키는 이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낸다. dhseol@chonbuk.ac.kr